

大學生의 父母됨 動機와 父母役割概念에 관한 研究

—A Study on Motivations for Parenthood and Parental Role Concepts in
Korean College Students—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유안진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강사 신양재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An Jin Yoo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Yang Jai Shin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orean youth's motivations for parenthood and concepts of parental role and to examine closely the relationship with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age, sex, religious orientation, growth region, father's occupational level, parental education degree). The subjects are 465 students of the three universities in National Capital region. The data are collected by questionnair methods and analyzed by t-test, F-test, fa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The motivations for parenthood are classified into five factors. These are acquisition of social status factor, continuation of self factor, achievement and creativity factor, tradition factor, primary group ties factor. The korean youth think the most of achievement and creativity factor among five motivation factors.
- 2) The korean students have somewhat stereo-typed concepts of parental role and place the stress on training the behaviors of the child and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 3)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to have relationship with the motivations for parenthood are age, sex, growth region and father and mother's educational degrees. And the variables related with the concepts of parental role are sex, father's occupational level.
- 4)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traditional role concepts of a father and motivation of acquisition of social status factor and tradition factor. And traditional role concepts of a mother are related with motivations of acquisition of social status factor and primary group ties factor among the motivations for parenthood.

Ⅰ. 서 론

부모가 됨은 대개 다른 어떤 성인 역할보다도 한 개인이 성숙에 이르렀다고 해석되며(Hoffman & Manis, 1979), 또한 Guttman은 부모됨이 대부분의 여성, 남성에게 있어서 생애의 궁극적 의미의 출처가 된다고 했다(Huyck & Hoyer, 1982). 이처럼 부모됨은 개인의 생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의학의 발달로 인태 임신, 출산을 개인이 상당히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부모됨이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들은 경제적 자산으로 중요한 한 몫을 하였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녀출산은 부모가 책임져야 할 경제적 의무를 뜻하게 되었다(Bigner, 1979). 이러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과거에는 부모됨에 관하여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이 지금은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青年期の 發達課業으로 結婚과 家族生活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과업으로 강조된다(Havigust, 1972; 김종서 외 3인, 1982).

한편 발달과업의 수행은 社會文化的 脈絡의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가 안정된 시기에는 성인역할의 規範의 順序와 役割 內容에 대한 同意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適應하는 것이 용이하나, 급격한 사회 변화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전통적 역할 기대가 변화되어 역할내용이나 순서가 점차로 복잡해지므로 발달과업의 성취가 어려워진다고 한다(Dion, 1985). 현대산업사회는 여성의 노동참여증가, 결혼의 연기, 높

은 이혼률, 가족크기의 축소 등 이전 시기에 비하여 가족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Neal, Groat, Wick, 1989), 傳統的·規範的 價値가 個人主義와 進歩主義 價値로 대체되고 있고(Van de Kaa, 1987), 가족체내에 부모역할에 대한 재개념정의를 요구하고 있다(Hugent, 1991).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로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했다. 이런 변화는 가족의 강한 일체감을 약화시키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게 하고 가정생활의 내용과 기능을 변화시켜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유안진 김연진, 1993). 즉 이들 변화는 成人期 發達の 핵심이 되는 가족과 관련된 役割概念을 모호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발달과업이 개인의 만족과 사회적 인정의 기준이라고 볼 때(Dion, 1985), 모호해지고 복잡해진 역할개념은 성공적인 발달과업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된다.

또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은 共有된 役割規範과 期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Burr, et al., 1979)고 볼 때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역할내용에 대한 명료한 개념화는 부모자신의 적응(White & Woollett, 1992)이나 자녀발달에도 긍정적인 작용(Maccoby & Martin, 1983; Mahale & Huston, 1984)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형성은 부모됨으로 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형성되어야 하는 바(Rossi, 1986), 청년기부터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처럼 부모됨에 관한 준비는 生涯發達の 觀點에

서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장차의 부모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의 기초가 되는데, 현재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미진한 형편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발전 및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된 70, 80년대를 성장기로 지내온 청년들이 자신들의 부모역할에 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부모됨의 動機와 父母役割概念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것은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장차의 부모역할에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서 기여하리라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됨의 동기

자녀를 낳아 기르기로 결정하는 데는 개인마다 특별한 생각이나 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유안진, 김연진, 1993). Veevers(1973)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미국 문화내에 존재하는 부모됨의 社會的 意味를 밝혀냈다. 그가 발견해낸 社會적 의미는 道德性 차원(morality), 責任性 차원(responsibility), 自然性 차원(naturalness), 性차원(sex), 結婚 차원(marriage), 精神衛生 차원(mental health)의 6개 주제로 되어 있다. Veevers는 이러한 社會적 의미는 일종의 文化적 압력으로서 개인 행동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부모됨을 수용하도록 동기화시킨다고 보았다. Rabin(1965)은 부모됨의 동기로서 종교적 의무로서 혹은 가문계승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宿命的 動機, 자녀를 위한 헌신, 애정에 이유를 둔 利他的 動機, 정상 성인 남녀로서의 성숙과 적절성 입증, 정서적 안정감 등의 自己陶醉的 動機,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 삶의 제 2의 기회를 갖는 등의 道具的 動機를 들고 있다.

Fawcett(1988)는 자녀를 갖는 가치로서 5개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愛情交流, 成就感 등의 心理的 측면, 노동력 확보와 노후안정지원의 經濟的 측면, 결혼이나 가족의 완성의 社會的 單位로서의 地位측면, 世代間 紐帶측면, 成人地位로의 영입 측면이 그것이다. Callen과 Gallois(1983)는 자녀가치에 관하여 요

인 분석을 한 결과 성인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지위 확보, 가문계승, 종교적·사회적 의무 충족, 결혼의 중요한 기능의 傳統的 價値要因, 자녀 성장에서 오는 기쁨, 교육과 양육의 보람,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 등의 情緒的 價値要因, 심신의 피로, 활동의 제약, 양육부담 등의 費用要因의 세 요인을 추출했다.

그런데 Seccombe(1991)는 현대에 들어 부모됨에 관한 태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적 활동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생활 방식이 가능해졌고, 효율적인 産兒制限 방법이 증가, 獨身, 同居, 離婚과 같은 과거와는 다른 가족생활방식이 만연해짐에 따라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의무적이기 보다는 하나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Van de kaa(1987)는 유럽 인구 변화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출산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런 감소는 개인주의와 진보주의로의 규범 변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즉 이들 가치는 교육, 수입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성행위, 출산, 가족형성 등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와는 달리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부모됨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가치가 심리적이고 정서적 만족에 기초하게 되어 세대간 유대가 유동적이고 확고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하였다(Ryder, 1979). 즉, 현대의 젊은 사람들은 부모세대에 비해서 개인적 지위, 합리적 선택, 쾌락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녀 가치에 대한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은 점차로 미약해지고 개인 수준에서의 감정이나 실용적 관점이 강조된다고 한다(Neal, Groat & Wicks, 1989).

국내 연구를 보면 자녀를 기르는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개발조사 연구소에서 1979년도와 1981년도에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노후에 안심하기 위해서 등이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 전통적 가치가 높았다. 또한 박경애(1992)는 性選好와 妊娠動機간의 관계를 임신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력, 자녀양육의 가치, 심리적 안정, 가계계승, 노후의 경제적 의존, 가사의 조력의 6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남아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가계계승,

노후의 의존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미 자녀를 갖고 있거나, 기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이다. 박성연(1986)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관하여 어머니와 딸 세대간의 비교 연구를 하였는데, 어머니 집단은 젊은 세대 보다 전통적인 자녀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젊은 세대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식을 갖는다는 견해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와같이 청년기를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문 상태이므로, 이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2. 부모역할개념

Parsons와 Bale(1955)은 부모 역할을 성을 기준으로 하여 道具的 役割과 表現的 役割의 兩分的 틀로 개념화하였다. 즉, 아버지는 외부 세계에 가족을 대표하며 부양자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족원에게 애정, 온정,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부모의 전통적인 모습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전통적인 모습은 가족의 부양자로서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가족의 부양에 쏟아 직업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힘과 권위의 모델로서 자녀들에게 중요하나 실제로 자녀들을 돌보는데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내에서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썼다(Fein, 1986).

이에 대하여 최근들어 성구별적 부모역할 수행이 점차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Russell, 1978; Bigner, 1979; Rotundo, 1985; Fine, 1986; Hugent, 1991). 가족 크기가 점점 축소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여성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 역할이 성인 여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직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Hoffman, 1977). 이에 따라 유일한 경제적 부양자

로서의 부성의 역할이 감소되고 기본적인 자녀 보육에 협조할 필요가 증가되고, 이상적 부성으로 매일 매일 자녀양육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자녀와 좀더 표현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지내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Rotundo, 1985). 즉 父性과 母性의 구별이 모호해진 兩性的 父母役割의 概念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onner, Johannis, Walters(1954)는 17세에서 22세의 청년들과 그들 부모를 대상으로 이상적 아버지상, 어머니상, 자녀상에 관하여 면접하여 이를 전통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의 두 범주로 구별하였다. 傳統的 觀點의 이상적 아버지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자녀를 訓育하고 가족내 모범이 되어 주며, 이상적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고 요리를 하고 종교적 가치를 가르치고, 좋은 모범이 되며, 이상적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복종한다고 각각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進歩的 觀點에서는 이상적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와 가족원의 成長과 發達을 鼓舞시키며, 이상적 자녀는 인성과 사회성 측면에서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것은 Duvall이 이상적 부모개념에 관하여 범주화한 연구(Bigner, 1979)와 일치한 결과이다.

Peterson과 Rollins(1987)는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支援과 統制의 두 차원으로, 부모의 支援 차원은 溫情, 愛情, 保育, 受容 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부모의 統制 차원은 訓育, 行動誘導, 支配, 制限, 強制, 權威主張 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한다고 한다. 그런데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역할수행은 그에 대한 공유된 개념과 기대 획득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고, 父母役割에 대한 規範과 期待가 명료하고 잘 구조화된 경우에는 효과적인 부모역할수행이 가능한데(Burr, et al., 1979), 요즘 부모역할수행 중에서 자녀를 벌주어야 하는 시기, 벌주는 방식과 정도, 과잉애정의 정도, 성취압력의 적절한 정도 등에 대한 기대나 규범이 모호해져서 개인마다 다른 양상으로 혼재하고 있어(Peterson & Rollins, 1987), 자신감 상실 등 부모역할수행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White & Wollett, 1992)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모역할개념은 性別 役割, 統制, 成長支援의 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성구별적인 역할 개념이 강하고 부모의 권위와 통제를 강조하는 傳統的 父母役割概念과 융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갖으면서 양육에서 자녀의 자율적 발달을 중요시하는 進步的 父母役割概念으로 大別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갖는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이성진, 1973; 한남제, 1981; 고성혜, 1983)가 대부분으로, 자신이 수행할 역할로서의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조사는 거의 없으며 더욱이 부모역할수행에 관한 공유하는 기대나 규범이 모호해진 현 실정에서 볼 때 장차의 부모역할적응에 관한 조망을 위해서 청년들이 부모역할수행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3. 부모됨 동기, 부모역할개념 및 관련 사회인구학적 변수

부모됨에 관한 태도는 부모가 됨으로서 현재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의 시작 전에 그 기원을 둘 수 있겠는데(Bigner, 1979; Wollett, 1991), 자신의 방위가족에서의 경험에 따라(Brim, 1968), 연령에 따라(Lee, 1982), 성별에 따라(Hoffman & Manis, 1979; Neal, Groat, Wick, 1989) 차이가 난다고 한다. Lee(1982)연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13, 15, 17, 19세의 연령집단을 연구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로 부터 오는 심리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교육연수와 도시생활의 경험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동기를 중요시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Hoffman과 Manis(1979)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一次的 紐帶感이나 愛情의 動機를 더욱 중요시 하며 그것은 여성이 보다 자녀의 일차적 양육자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조사(한국객립조사연구소, 1983)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전통적 가치인 家門繼承의 이유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종교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출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 부모됨을 자극하고 지지하며 정당화하기 때문에(Veevers, 1978), 종교적 경험이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부모됨에 대한 가치가 個人主義的 경향을 띄는 것과 산업화에 의한 도시 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논의(Van de Kaa, 1987; Neal, Groat & Wicks, 1987)로 볼 때 성장지역과 부모됨의 동기는 연관이 있으리라 보이므로 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부모됨의 가치에 관한 세대간의 비교를 한 연구(Nanerow & Philliber, 1983; 박성연, 1986)에서는 자녀 세대의 가치는 직계가족으로부터 전수된 가족적인 轉移보다는 社會로 부터 形成된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자신의 방위가족에서의 경험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Brim, 1968)로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과 남성은 그들의 정체감으로서 부모역할을 수용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역할을 더 중요시 하며(Simons, Whitbeck, Gonger, Melby, 1990), 종교지향성과 전통적 부모역할 지향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한다(Neal, Groat, Wicks, 1989). 이를 통해 볼 때 부모역할개념은 성별과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모 역할은 자신이 성장기에 양육된 방법과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본인과 자녀에 대하여 비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며(Thorton, Alwin, Cambutn, 1983), 양성적 아버지역할의 이념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동수행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난 계층은 중류층이라는 연구(LaRossa, 1988)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부모역할개념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통적 성역할 지향 정도와 자녀에 대한 태도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Scanzoni, 1975; Neal, Groat, Wicks, 1989)로 볼 때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개념간에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고, 부모역할개념 중에서 성별구분과 연관된 영역

만이 연구되었으므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수들로 연령, 성, 종교, 성장지역,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이 관련이 있어 보이나, 이들 변수들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개념간의 관계가 아직 논의 수준으로 실증적으로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바가 많고,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어 이에 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4. 연구 문제

앞의 선행연구 고찰을 기초를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 1」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성, 종교, 성장지역,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역할개념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성, 종교, 성장지역,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 인천, 춘천의 각 지역에서 1개교씩 하여, 3개 대학교의 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진출한 바와 같이 이때는 성인기로의 과도적 시기로서 결혼 및 부모됨 등 미래가족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및 계획의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되고,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이 후 시기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비

하다고 보아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부실기재한 32명을 제외한 4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공과 학년의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계열 전공은 259명이고 이공계열은 206명이며, 연령 분포는 18세 52명, 19세 154명, 20세 103명, 21세 47명, 22세는 35명, 23세는 32명, 24세 이상은 42명이다. 자료수집은 1993년 3월 9일 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로서 부모됨동기측정, 부모역할개념측정, 사회인구학적 특성측정의 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부모됨 動機測定 질문지는 선행연구들(Veevers, 1973; Russell, 1974, Hoffman & Manis, 1979; Callan & Gallois, 1983; Fawcett, 1988; Wollett, 1991)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총 18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에 의해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학 분야의 전공자들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으며, 신뢰도는=0.82이다.

父母役割概念 測定 질문지는 先行研究들(Duvall, 1946; Conner, 1954; Gecas, 1976; Gilbert & Hanson, 198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아버지역할개념과 어머니역할개념을 구별하여 각각 17문항씩 총 34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형식에 의하여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로 중요시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버지역할개념과 어머니역할개념 측정 도구 각각은 성을 기준으로 한 역할 내용인 性役割領域 4문항,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훈육이 강조되는 統制·訓育영역 5문항, 자녀의 발달적 요구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성장을 자극, 격려하는 역할이 강조하는 成長刺戟領域이 8문항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부모역할개념이 성구별적이고 부모의 통제나 감독을 강조할 경우를 傳統的 役割概念으로, 융통적인 성역할개념을 갖고 양육에서 자녀의 자율적 발달을 중요시할 경우를 進歩的

役割概念으로 보았다. 이에 성역할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 역할개념에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통제·훈육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역할개념에 가까우며, 성장자극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 부모역할개념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역할 영역의 문항 중 성별 구분적 문항에서 '매우 중요하다'한 경우는 1점을 주고 융통적인 문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할 경우에는 5점을 주었고, 한편으로는 통제·훈육영역의 문항을 '매우 중요하다'할 경우에는 1점을 주고, 성장자극영역 문항을 '매우 중요하다'할 경우에는 5점을 주어서 이들을 합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개념의 전체점수를 내어 분석하였다.

社會人口學的 變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연령은 청년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김중서 외 3인: 윤진, 1985, 재인용) 19세를 중심으로 하여 19세 이하와 20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종교는 종교의 유무로 분류하였고, 성장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광촌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홍두승(1983)의 직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무직, 단순노무직 등은 1,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자영상인, 자영서비스업자 등은 2, 하위전문직, 하급공무원, 사무직 등은 3, 전문직, 정부 회사의 고급관리직 등은 4로 하여 4수준으로 구분하였고,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을 무학과 국졸은 1, 중·고졸은 2, 대학·대학원졸은 3으로 하여 3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하였고, 부모됨 동기를 내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부모됨 동기요인과 부모역할개념간의 관계와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test를 적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개념의 일반적 경향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18문항을 주성분분석과 직교방법(varimax)을 적용한 결과 아이젠 값이 1.0 이상인 5개요인이 추출되었고, 추출된 5개요인은 전체변량의 54.8%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들 요인들은 구성항목의 특성에 따라 제 1요인은 社會的地位要因, 제 2요인은 自己延長要因, 제 3요인은 創造·成就感要因, 제 4요인은 傳統性要因, 제 5요인은 一次的集團紐帶感要因이라고 각각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내용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社會的地位要因은 자녀가 있으므로 남들에게 안정된 부부로 보이며 제대로 된 가족구조를 갖춘다고 할 수 있고, 자녀를 두는 것이 사회적인 기대이고, 없는 경우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녀를 갖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즉 자녀가 있어야 사회에서 성인, 부부,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된다는 동기로서, 전체 분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24.7%)을 차지하고 있다. 自己延長要因은 자녀를 통하여 무한한 인생을 살며 자신이 못다 이룬 목표도 달성하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모가 됨으로써 삶의 윤희성을 극복하여 자신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동기이다. 創造·成就感要因은 키우는 동안 보람과 재미를 느끼고 인생의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고 자신의 인격도 성숙한다는 개인심리적 동기이다. 傳統性要因은 집안의 혈통유지와 대를 이으며, 다음 사회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통적 가치에 부모됨의 동기를 두고 있다. 一次的集團紐帶感要因은 자녀를 통해서 가족과 세대간의 결속이 튼튼해지고 핏줄끼리의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혈연간의 애정과 유대감을 부모됨의 동기로 삼는다.

이들 요인별로 평균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이

〈표 1〉 부모됨 동기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량
사회적지위요인 (요인I) Eigen값 4.449 Pct of Var 24.7	1-5	2.40	1.02	0.71
	1-8	1.91	0.87	0.70
	1-16	2.27	1.02	0.63
	1-3	1.44	0.77	0.60
자기연장요인 (요인II) Eigen값 1.783 Pct of Var 9.9	1-9	1.78	0.90	0.70
	1-15	1.80	0.81	0.66
	1-10	2.60	1.14	0.65
	1-13	1.89	0.97	0.60
창조 성취감요인 (요인III) Eigen값 1.294 Pct of Var 7.2	1-6	2.71	1.09	0.70
	1-7	2.86	1.20	0.67
	1-18	2.77	1.10	0.64
	1-2	3.31	1.05	0.42
전통성요인 (요인IV) Eigen값 1.267 Pct of Var 7.0	1-4	2.50	1.19	0.76
	1-14	2.13	1.04	0.71
	1-1	2.93	1.21	0.65
일차집단유대감 (요인V) Eigen값 1.075 Pct of Var 6.0	1-12	2.83	0.97	0.65
	1-17	2.66	1.07	0.65
	1-11	2.90	1.04	0.63

* 5개 요인의 전체분산은 54.8% 임

〈표 2〉 부모됨 동기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값

동기요인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지위	2.01	0.66
자기연장	2.02	0.66
창조성취감	2.91	0.75
전통성	2.52	0.89
일차집단유대감	2.80	0.76

창조 성취감요인이 가장 높아, 개인심리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요인의 점수는 가장 낮아서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견해에 부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yder(1979)나 Neal, Groot, Wick(1989), 박성연(1986)의 연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개념을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표 3〉 참조), 먼저 성역할영역은 각각 2.78과 2.70로 약간 전통적인 성별 구분의 역할개념의 경향을 보여 아버지역할은 경제적 지원역할이 중시되며 어머니역할은 음식, 청소, 빨래 등의 가사역할이 중시된다. 이런 경향은 아버지역할보다 어머니역할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차이검증 결

〈표 3〉 아버지역할과 어머니역할의 영역별
평균 및 차이검증

	성역할영역	통제 훈육영역	성장 자극영역
아버지	2.78	4.37	4.38
어머니	2.70	4.41	4.40
t값	2.27*	-3.41**	-1.40

* P < 0.05 ** P < 0.01

과 아버지역할과 어머니역할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고 어머니역할이 보다 성구별적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로 통제·훈육역할이나 성장자극역할 모두 중요시하고 있다. 즉 통제·훈육역할은 4.37, 4.41이고 성장자극역할은 4.38, 4.40으로 높은 점수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의 비교를 위해서 차이검정한 결과 통제·훈육역할에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의 역할로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고, 성장 자극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개념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부모됨동기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t-test와 F-test를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나이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차이를 보면 5개의 요인 중에서 傳統性要因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높은 집단이 부모됨의 동기로서 사회나 가계의 계승이라는 전통성요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이는 Kee (198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나, 이는 그의 연구대상이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은 그보다 연령이 높다는 대상의 차이와 다른 문화배경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성별로 본 부모됨의 동기차이는 일차적 집단유대

감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社會的 地位要因, 自己延長要因, 傳統性要因은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이 중요시 하고 있으나 創造·成就感要因은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부모됨의 동기로 전통적 규범적 가치를 더 유지하고 있어, 이런 남녀간의 차이는 가족형성에 있어서 많은 의견조정과정이 필요하리라 예측된다.

종교유무에 따른 부모됨 동기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지역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차이는 전통성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성장지역이 도시화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모됨의 동기로서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는 전통성요인만이 각각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됨의 동기로서 전통적 가치를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부모역할개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F-test를 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다.

아버지역할개념과 어머니역할개념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이며 아버지역할개념에서만 부의 직업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역할개념은 남학생인 경우가 진보적 개념을 지향하고 어머니역할개념은 여학생인 경우가 진보적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역할개념에서 전통적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됨 동기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도시화가 낮은 지역에서 성장할수록,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전통적 가치를 부모됨의 동기로서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역할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고 부의 직업수준에 따라 아버지역할개념에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됨 동기의 차이검증

변수	분류집단	사회적지위	자기연장	창조성취감	전통성	유대감	
나이	19세이하(206)	1.95	2.01	2.86	2.40	2.77	
	20세이상(259)	2.05	2.02	2.94	2.62	2.82	
	t	-1.52	-1.13	-1.24	-2.70**	-0.73	
성	남(273)	2.06	2.12	2.82	2.71	2.80	
	여(192)	1.93	1.87	3.04	2.25	2.79	
	t	2.07*	4.14***	-3.17**	6.63***	0.18	
종교	유(223)	2.00	2.06	2.95	2.54	2.85	
	무(242)	2.01	1.98	2.87	2.50	2.75	
	t	-0.12	1.27	1.12	0.39	1.45	
성장 지역	대도시(160)	1.99	1.96	0.91	2.38	A	2.77
	중소도시(168)	2.00	2.03	2.88	2.56	AB	2.86
	농어광촌(137)	2.04	2.07	2.95	2.63	B	2.75
	F	0.23	1.18	0.39	3.07*		0.92
부의 직업	무직, 단순노무직(24)	2.24	2.25	2.95	2.63		2.89
	생산및관련직, 자영상인(247)	1.98	1.99	2.88	2.56		2.77
	하위전문직 공무원, 사무직(166)	2.00	2.01	2.92	2.46		2.79
	전문직, 고급관리직(28)	2.04	2.09	3.17	2.46		2.94
	F	1.13	1.23	1.32	0.58		0.54
부의 교육 수준	무학·국졸(63)	2.16	2.14	2.85	2.77	A	2.81
	중·고졸(285)	1.97	1.99	2.92	2.50	AB	2.77
	대·대학원졸(117)	2.02	2.02	2.92	2.43	B	2.86
	F	2.28	1.37	0.25	3.08*		0.54
모의 교육 수준	무학·국졸(119)	2.13	2.05	2.89	2.69	A	2.82
	중·고졸(308)	1.96	1.99	2.91	2.49	AB	2.79
	대·대학원졸(38)	2.01	2.11	2.98	2.21	B	2.79
	F	2.94	0.70	0.21	4.70**		0.09

1. * P<0.05 ** P<0.01 *** P<0.001

2. 동일문자의 집단은 차이가 없음(유의수준은 0.05).

4. 부모역할개념에 따른 부모됨 동기

부모역할개념과 부모됨의 동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부모역할개념의 각 영역의 중앙값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

로, 성역할점수와 성장 자극역할 점수가 각 영역의 중앙값보다 높고 동시에 통제·훈육역할점수가 중앙값보다 낮을 때 이를 진보적 부모역할개념으로 하였고, 역의 경우를 전통적 부모역할개념으로 분류하였다. 기준이 된 각 영역의 중앙값은 아버지역할개념

〈표 5〉 사회적·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부모역할개념의 차이검증

변수	분 류	아버지		어머니	
		역 할	개 념	역 할	개 념
나이	19세이하(206)	2.93		2.90	
	20세이상(259)	2.93		2.89	
	t	0.13		0.58	
성	남(273)	2.97		2.84	
	여(192)	2.88		2.97	
	t	4.34***		-6.65***	
종교	유(223)	2.93		2.90	
	무(242)	2.94		2.89	
	t	-0.68		0.36	
성장 지역	대도시(160)	2.93		2.89	
	중소도시(168)	2.93		2.92	
	농어광촌(137)	2.94		2.90	
	F	0.19		2.39	
부의 직업	무직, 단순노무직(24)	3.03	A	2.89	
	생산및관련직, 자영상인(247)	2.94	B	2.88	
	하위전문직 공무원, 사무직(166)	2.92	B	2.94	
	전문직, 고급관리직(28)	2.87	B	2.94	
	F	2.82*		1.01	
부의 교육 수준	무학·국졸(63)	3.82		3.80	
	중·고졸(285)	3.94		3.83	
	대·대학원졸(117)	3.86		3.88	
	F	0.21		1.92	
모의 교육 수준	무학·국졸(119)	2.96		2.87	
	중·고졸(308)	2.92		2.90	
	대·대학원졸(38)	2.93		2.95	
	F	2.09		2.03	

1. * p < 0.05 ** p < 0.01 *** p < 0.001
2. 동일문자 집단은 차이가 없음(유의수준은 0.05).

의 성역할영역은 2.75, 통제·훈육역할영역은 4.4, 성장자극역할영역은 4.38이며, 어머니역할개념은 성역할영역은 2.75, 통제·훈육역할영역은 4.4, 성장자극역할영역은 4.38이다.

이러한 절차로 부모역할개념을 전통적 개념집단과

진보적 개념집단으로 구분하여 부모됨의 동기를 차이검증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왔다.

아버지역할개념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의 차이는 社會的地位要因과 傳統性 要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왔다. 즉 아버지역할개념이 전통적일수록

〈표 6〉 부모역할개념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의 차이검증

		사회적지위	자기연장	창조성취감	전통성	일차적집단유대감
아버지	전통적개념(30)	2.36	2.13	3.04	2.70	3.03
	진보적개념(33)	1.90	2.03	2.86	2.31	2.71
	t	-2.87**	-0.62	-1.02	-2.07*	-1.80
어머니	전통적개념(35)	2.34	2.19	2.98	2.71	3.09
	진보적개념(26)	1.89	2.01	2.95	2.32	2.69
	t	-2.36*	-0.99	-0.13	-1.73	-2.00*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모됨의 동기로서 사회적 지위요인과 전통성요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어머니역할개념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는 社會的地位要因과 一次的集團紐帶感要因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어머니역할개념이 전통적일수록 부모됨의 동기로서 사회적 지위 요인과 일차적 집단유대감 요인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VI 결 론

본 연구는 青年期の發達課業으로서 부모됨의 준비는 미래의 父母役割遂行 및 자녀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生涯發達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이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청년기 대학생이 갖고 있는 부모됨의 動機와 父母役割概念을 알아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지역의 3개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나왔다.

첫째, 청년기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5요인이 추출된 바, 제 1요인은 부모됨으로 성인 정체감이나 부부,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社會的地位要因, 제2요인은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연장, 실현하고자 하는 自己延長要因, 제3요인은 자녀 출산, 성장을 통해서 창조와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創造·成就感要因, 제4요인은 집안이나 사회의 존속, 계승을 위한 傳統性要因, 제5요인은 자녀를 통해서 혈연간의 애정과 유

대감을 갖고자 하는 一次的集團紐帶感要因이 그것이다. 이를 요인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창조 성취감요인이 가장 높아 개인심리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장 낮은 것은 사회적 지위요인으로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때문에 부모가 된다는 견해에는 덜 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청년기대학생은 부모역할 개념에서 성역할 개념은 약간 전통적인 성별구분의 경향을 띄고 있으며 이외로 통제 훈육이나 성장자극 역할을 모두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역할개념과 어머니역할개념간의 차이를 보면 아버지개념에 비해 어머니개념에서 보다 성구별적 경향을 보이고, 통제·훈육역할을 어머니에게 좀더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부모됨동기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사회적 지위요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중요시하고 자기연장요인은 남학생이 중시하고, 창조·성취감요인은 여학생이 중시한다. 또한 전통성요인은 나이가 많을수록 남학생인 경우, 도시화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성장할수록, 부모의 교육이 낮을수록 이 동기를 중요시 한다.

네째, 부모역할개념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전체아버지역할개념은 남학생인 경우 진보적 개념을 지향하고, 어머니개념은 여학생이 진보적 개념을 지향하고, 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 아버지역할개념을 지향한다.

다섯째,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간의 관계를 보면 전통적 아버지역할개념을 가질수록 부모됨의 동

기로서 사회적 기대, 지위획득을 중시하고, 집안이 나 사회의 계승 등의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에 관해 전통적 개념을 가질수록 부모됨의 동기로서 사회적 기대, 지위획득을 중요시 하고 혈연간의 애정, 유대감을 위한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결과로 볼 때 부모됨에 관한 규범적 전통적 이유는 약화되고 개인심리적 동기가 강화되고 있으며, 부모됨의 동기나 부모역할개념에 있어서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남녀간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결혼 이후에 부부간에 자녀 출산이나 자녀양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상당한 의사소통과 조정과정이 필요하리라 예견된다.

본 연구는 청년기 대상을 대학생에 국한시킴으로써 표집에 제한을 갖고 있으며, 부모됨의 동기의 5요인이 전체 분산의 54.8%만을 설명하고 있어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동기내용이 있음이 추측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상호작용과정과의 관계의 규명도 필요하리라 본다.

청년기는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성인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과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성공적인 성인기발달을 위해서는 아동기 동안 제공된 이상의 부가된 준비가 필요함(Dion, 1985)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고 이에 청년기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고성혜, 학동기 자녀가 본 부에 대한 태도 역할 기대,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 8권, 1983, 21-37.
- 2) 김종서 외 3인,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3) 박경애, 임신부의 자녀관: 성선호와 임신동기,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992, 25-34.
- 4) 박성연, 자녀에 대한 가치관 - 어머니와 딸 두 세대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권, 1986,

- 189-197.
- 5) 유안진, 아동양육, 서울: 문음사, 1992.
- 6) 유안진, 김연진,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1992.
- 7) 윤진,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5.
- 8) 홍두승,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1983, 169-213.
- 9) 한국갤럽연구소, 한국의 아동과 어머니, 서울: 한국갤럽연구소, 1980.
- 10) —————,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 11) 한남제,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자녀의 역할기대, 경북대논문집 31권, 1981, 85-108.
- 12) Bigner, J.J., Parent-child relations, N.Y.: Macmillan Publishing, 1979.
- 13) Brim, O.G., Adult socialization, In J.A. Clausen (ed.), Socialization and societ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8.
- 14) Burr, W.R., Leigh, G.K., Day, R., & Constainine, J., Symbolic interation and the family, In W.R. Burr et a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2, N.Y: Fre Press, 1979.
- 15) Callan V.J. & C. Gallois, Perceptions about having children: are daughters differrent from their mothe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45, 1983, 607-612.
- 16) Conner R., J.B. Johannis, Jr., J. Walter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tra-familial conceptions of the good father, good mother & good child J. of Home Economics V46, 1954, 187-191.
- 17) Dion K. K., Socialzation in adulthood In G. Lindzey & E. Aronson(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ed., N.Y.: Newbery award records, Inc, 1985.
- 18) Ellicott, A.M., Psychosocial changes as a function of family cycle phase, Human Development, V28, 1985, 270-274.
- 19) Fawcett J.T.,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 Family Review*, V12, 1988, 12-34.
- 20) Fein R.A., Research on fathering: social policy and an emergent perspective, In A.S. Skolnick & J.H. Scolinick(eds.), *Family in transition* 5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21) Gecas V., The socialization and child care roles, In F.I. Nye(ed.),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hills: Sage Publication, 1976.
 - 22) Hoffman L.W., Change in family roles, socialization and sex difference, *American psycologist*, V32, 1977, 644-657.
 - 23) Hoffman L.W. & J.D. Manis,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41, 1979, 583-596.
 - 24) Hugent J.K.,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3, 1991, 475-485.
 - 25) Huyck, M.M. & W.J. Hoyer, *Adult development & aging*,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2.
 - 26) LaRossa R.,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 V37, 1988, 451-457.
 - 27) Lee, Poo-Kong, Motivation for childbearing among Malaysia, *J. of Biosocial Science*, 14, 1982, 157-166.
 - 28) Maccoby E.E. & J.A. Martin,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V, N.Y.: John Wiley & Sons, 1983.
 - 29) McHale S.M. & T.L. Huston, Men and women as parents: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and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V55, 1984, 1345-1361.
 - 30) Neal A.G., H.T. Groat, J.W. Wicks, Attitudes about having children: a study of 600 couples in the early tears of marri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1, 1989, 313-328.
 - 31) Nugent J.k.,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 of Marriage and Family*, V53, 1991, 475-485.
 - 32) Parsons T.& R.F. Bale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Y.: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55.
 - 33) Peterson, G.W.& Rollins, B.C.,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Y.: Plenum Press, 1987.
 - 34) Rossi, A.S.,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 Skolnick, & J.H. Skolnick(eds.) *Family in trsition* 5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
 - 35) Rotundo E.A., American fatherhood: a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29, 1985, 7-25.
 - 36) Russell C.S.,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36, 1974, 294-301.
 - 37) Russell G., The father role and its relation to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Child development*, V49, 1978, 1174-1181.
 - 38) Seccombe K., Assessing the costs and benifits of children: gender comparisons among childfree husbands and wiv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3, 1991, 191-202.
 - 39) Simons L.S., L.B. Whitebeck, R.D. Conger & J. N. Melby,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tions of parenting: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al behavior,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52, 1990, 375-392.
 - 40) Steffensmeirer R.M., A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44, 1988, 319-334.
 - 41) Thornton A., D.F. Alwin, D. Camburn, Causes and consequences of sex role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48, 1983, 211-227.
 - 42) Van de Kaa, Europe's second demographic

-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 1987. 1-57.
- 43) Veevers J.E., The social meanings of parenthood, Psychiatry V36, 1973, 291-310.
- 44) White, D., & Woollett, Families: A context for development, London: The Falmer Press, 1992.
- 45) Wollett A., Having children: accounts of childless women and women with reproductive problems, In A. Phoenix, A. Wollett & E. Lloyd(eds.), Motherhood: meanings, practices & ideologies, London: Sage publication, 1991.